예수님 만나는 법

(눅2:21-33)

21.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법'이라는 말을 쓸 때가 언제인지 대강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말을 써서, 예를 들면 '구원을 확신하는 법', '부활 예수님을 믿는 법' 이렇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basic 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이라는 말을 써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근본적인 얘기죠?
예수님 만나는 법, 이 예수님 만나는 법을 한번 본문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리처드 흔이라는 분이 지으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1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는지, 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 꼭 해야 할 101가지라고 하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101가지의 목록은 목차가 소개되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이것 쉽지 않지요?
또 '상어와 함께 헤엄친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열 번째로는 '거리에서 낙서로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 11번째로는 '토네이도를 쫓아간다', 토네이도는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번째가 포커의 달인이 되어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딴다, 21번째 인체실험의 대상이 된다, 23번째 경찰에 체포된다, 그리고 95번째가 '복수를 한다'.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뻔한 인생살이를 fun한 인생살이로 바꾸기 위해서 꼭 해야 될 101가지>
그런데 이게 재미있게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재미를 찾아야 되겠는가?
어쨌든 기발한 101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1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신할 수 있는 너무나 fun, 재미가 없어 보이는 듯 한 삶을 산 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소개됩니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철수와도 같은 이름이지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첫째 아들을 위한 속전을 성전에 바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예식을 치릅니다.
정결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사회 내에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서 공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정결예식을 치르고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첫째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친

다는 의미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예수님을 보자 그 예수님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고백적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대로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건 분명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뭔지 모르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만 살펴보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줄로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나 하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삶을 위해 꼭 해야 될 101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뒤로는 시므온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 삶이고 존재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괴로운 인생인 거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되었던 그 기다림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아기예수님께서 바로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만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 아기를 가슴에 안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쓸쓸함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아기를 안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중에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주재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에요.

이제 아기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분이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예수님을 안고 이제 자기는 세상을 떠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얼마나 신바람 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일평생 기다리다가 아기예수를 안고는 이제는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아기예수를 봤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 너무너무 안됐고, 그 입장이라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39절까지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도 입장이 똑같아요, 이제 여든 네 살입니다.
살아야 얼마를 더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과부가 된 채로 60년을 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 누가가 안나와 시므온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건지 아십니까?
아기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천하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을 위한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는 법을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냐?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세주를 만나는 법이 누가복음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므온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법, 이게 어떻게 해야 아기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까?
일평생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의 삶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단계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식 잘 길러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할 일이 많고 꿈과 비전이 많은 상태에서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성공이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더 이룰 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구세주로 만나지십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럼 이제는 죽음이 곧바로 눈앞에 닥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이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지, 오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제자들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므온과 제자들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시므온이 예수님과 만나기까지는 평생이 걸렸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까지 시므온은 평생이 걸리고, 안나는 60년, 제자들은 3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짜 만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음을 직감하면서 노래하듯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따라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뭐가 어렵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을 고쳐서 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부르는 법'이라고 하면 되요.
'구원을 갖다 주는 예수님 이름 부르는 법'
그 법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됐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성공은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의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의 성취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의미도 존재의 이유도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 만난 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법이라는 얘깁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야지, 예수님 만난 뒤에도 대통령 돼야지, 장

관 돼야지, 멋진 음악가로 출세해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불러봐야 못 만나요.

그래서 결국 장로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죽을 것이 확실하게 될 때라야 세상을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마음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던 장로님께서 예수님 만나는 데에 80년이 걸리는 겁니다.
자랑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든 셋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하면서 하늘나라로 마음을 돌리십니다.
83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데에.
예수님 만나는 것, 만난 다음에는 세상의 삶이 없다, 있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만나지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시고 아버지 계신 나라로 가는 것이 소원인 자가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사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죄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하는데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범죄행위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고 원칙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만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전제조건이고 믿음이

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버려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삶의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 받은 상태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몸을 장갑 삼으시고, 그 몸을 집 삼으시고, 그 몸을 옷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의 삶이었죠.
그러나 사도들이나 시므온이나 그들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만난 뒤로는 죽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삶의 의미는 내가 재벌총수였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기 위한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후로는 내 마음에서는 삶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내 마음에서는 없어져버릴 각오가 돼있으면서 예수이름을 부르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는 법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 삶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시므온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삶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다, 끝났다, 예수님 만난 것으로 성공이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장관 되었다고 좋아할 때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좋다', 이렇게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희 씨가 재벌이라서 부러울 때에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당신이 안 부럽다' 하고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옆집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자랑할 때, '내 자식 꼴꼴나게 못났어도 나는 예수님 만난 것으로 기뻐할 것이다'고 내미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이게 예수님 만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나가야 될 길이 멀고, 예수님 만난 뒤에도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이 많고, 예수님 만난 뒤에도 아직도 가져야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상태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이룰 게 많아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만나는 법이 완전히 충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법이라는 거죠.
시므온, 이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머물기를 소원한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분 것이 된 뒤에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이것저것 많다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법.
"내가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끝장나는 거다,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끝이다"라고 마음먹고 예수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법이고, 그것이 충족되어진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사건이라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우습지요?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결국은 없어져야 될 이 세상 안에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바른 법대로 깨닫고 행해서 예수님 만나, 구원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